

이희호

1922 ~ 2019



10일 밤 97세 일기 별세
이낙연 총리 장례위원장
5일 간 사회장으로 치러

97세를 일기로 지난 10일 별세한 이희호 여사는 남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불어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부딪힌 험난한 생의 여정을 마감했다.

이 여사는 남편인 김 전 대통령의 영원한 정치적 동지로, 군부독재 정권의 탄압 속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남편을 지켜내고 청와대 안주인이 되는 등 정치적 역경을 거듭한 김 전 대통령과 파란만장한 삶을 함께 했다. <관련기사 2·3·4면>
그는 유언을 통해서도 남편의 평생 소망이었던 남북통일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혀 눈을 감으면서까지 DJ의 영원한 정치적 동지를 증명했다.

이 여사는 일제 치하에 태어나 해방과 분단,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결혼 전에는 독신을 고집하며

유학을 다녀온 뒤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활약한 엘리트 여성이었다.

정치인의 아내라는 길로 들어선 이후 남편이 군사독재 정권 아래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을 노심초사 지켜보며 험로를 걸었다.

김 전 대통령이 옥고를 치를 때는 옥바라지로, 망명 때는 후견인으로, 가택연금 때는 동지로, 야당 총재 시절에는 조연자로 곁을 지킨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내조자를 넘어 정치적 동지라는 평을 받았다.

이 여사는 남편과 온갖 시련을 겪은 뒤 마침내 제15대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영광을 맛보기도 했다. 청와대 안주인이 된 이 여사는 70대 후반의 고령임에도 아동과 여성 인권에 관심을 두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 여사는 DJ 서거 이후에도 DJ 정부 '햇볕정책' 계승과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 행사를 여는 등 남편의 유업을 잇는데 힘을 쏟았다.

그런 그가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접고

2009년 8월 남편이 서거한 지 10년 만에 '인동초' 김대중의 곁으로 돌아갔다.

고 이희호 여사의 조문 첫날인 11일이 여사의 빈소에는 오전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추모객들의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신지이자 정치적 고향인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 여사 분향소가 설치되는 등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부디 영면하시길 바란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한편, (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상 전 국무총리서리, 민주평화당 권노갑 고문 이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의 장례위원회 고문으로 참여한다.

부위원장은 박지원 의원과 최홍준 전 전제교육 회장 등이 맡을 예정이며, 장례위원회는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에서도... 2008년 9월 한강 둔치에 만개한 코스모스 단지를 둘러본 뒤 기념 촬영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연합뉴스

수백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128명과 평화당 의원 14명,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장례위원회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장례위원회는 14일 오전 6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고

인을 운구해 오전 7시 신촌 장천 감리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한다. 이후 고인은 동교동 사저에 들른 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합장된다.

/최관일 기자 cki@kwangju.co.kr

헝가리 참사 유람선 인양 한국인 추정 시신 3구 수습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이니호 인양이 11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1시간 30분만에 총 4구의 시신이 수습됐다. <관련기사 5면>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오전 6시 47분 와이어를 감기 시작한 지 56분만인 7시 43분 조타실에서 헝가리인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수습됐고, 8시 4분부터 14분 동안 객실로 이어지는 입구에서 한국인 실종자 추정 시신 3구가 수습됐다.
객실로 이어지는 곳에서 잇따라 수습된

시신들은 모두 한국인 탑승객들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추가로 수습된 시신 중에는 어린이로 추정되는 시신도 1구 있으며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헝가리 구조 당국은 선체가 더 올라오면 물을 뺀 뒤 객실 쪽으로도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선미 쪽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훼손 부분이 발견되면서 인양 작업이 잠시 중단됐다. 허블레이니가 크루즈 바이킹 시진호에 충돌당한 부분의 파손이 예상보다 심각해 5번째 와이어를 추가로 연결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밤 바이킹 시진호에 들어박힌 뒤 7초 만에 침몰한 허블레이니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승객 7명만 구조됐다.



1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그리트 다리에서 크레인 클라크 아담호가 허블레이니호를 인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7명과 헝가리인 선장 등 모두 8명이 실종 상태에 있었으나 잇따라 시신이 수습되면서 실종자는 현재 4명으로 줄었다.

헝가리 당국은 전날 양쪽 선실 창문 14개 중 상태가 온전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에 모두 바를 부착하는 등 시신 유실 방지 대책을 마무리 지었다.

11일 인양 시작과 동시에 하류에는 경찰보트 등 17척의 소형선박들이 인양 작업 현장에서 시신 유실 가능성에 대비하기도 했다. 헝가리 경찰 대(對)테러본부의 여센스키 난도르 공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선체 안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네이버에서 '광주일보'를 검색하세요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 오픈

100년 신문을 향하는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이 오늘부터 새로운 이름 '광주일보'로 거듭납니다. '광주일보'는 광주일보가 가진 '광'으로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광주일보'에서는 영상 기사를 포함한 다채로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광주일보가 현장을 찾아가 촬영한 다양한 생생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맞춤형 콘텐츠를 지향하는 '광주일보'는 댓글이나 메일로 들어온 제보에 따라 다양한 도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네이버에서 '광주일보'를 검색해 주세요. 새로운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토스 스위치가 진행 중입니다. 정답을 맞힌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光州日報社

6월 14일(금)
주택홍보관 오픈!

남구의 정상을 넘어 단 하나의 절정이 되다 - 남구 서동 2지구 한국아델리움 에코

퍼스트 교통 :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 2호선 남구청역(예정), 광주터미널, 광주역 인접
퍼스트 생활 : 롯데백화점, NC백화점, 충장로상권, 남구청, 광주공원, 광주천 등 편리한 생활
퍼스트 교육 : 대성초를 품은 안심단지, 무진중, 석산고, 광주제일고, 수피아여중고교 등 인접
퍼스트 공간 : 앞선 감성의 탁월한 단지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와 고품격 인테리어 공간

주택홍보관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47-1

더 높은 삶으로의 초대!

정점을 기대하라!

남구를 대표하는 정상급 가치에 남다른 입지에서 누리는
정상의 생활까지 명품의 감동을 큰 만족으로 완성합니다!

"남구 서동 2지구 한국아델리움 에코"

대성초등학교
무등산

총 315세대 조합원모집 1차 204세대 / 2차 111세대

시행 光州남구 서동2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시공예정사 한국건설(주) 업무대행사 (주)태경리더스 분양대행사 (주)제이퍼스트 자금관리 아시아신택(주)

문의 전화 1811-6777